

케임브리지 선언

1996년 4월 20일

한국어 번역본

번역: 최용진

원문 출처: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

<https://alliancenet.org/about/cambridge-declaration/english/>

케임브리지 선언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영보다 이 시대의 정신에 점점 더 지배받고 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로서 이 죄를 회개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 자신을 부른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어의 의미는 변한다.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과거 이 말은 서로 다양한 교회 전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끈이었다. 역사적 복음주의는 고백적 신앙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위대한 보편 공의회들이 정의한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를 받아들였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오직'들, 곧 sola들 안에서 공동의 유산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개혁의 빛은 크게 흐려졌다. 그 결과 '복음주의'라는 말은 너무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어, 사실상 그 뜻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일치를 잃을 위험 앞에 서 있다. 이 위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과 역사적 복음주의의 중심 진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고백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진리들이 단지 우리의 전통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의 중심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고백한다.

Sola Scriptura: 권위의 침식

성경만이 교회 생활의 오류 없는 규범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을 그 권위 있는 기능으로부터 분리해 왔다. 실제로 교회는 너무 자주 문화의 인도를 받는다. 치료 기법, 마케팅 전략, 오락 산업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기능하며,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들은 예배, 특히 음악의 교리적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왔다. 성경의 권위가 실제 삶에서 버려지고, 그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지며, 그 교리가 선명함을 잃어감에 따라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함과 도덕적 권위와 방향을 잃어 왔다.

우리는 소비자의 체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참된 의의 유일한 척도로 선포하고 복음을 구원의 진리에 대한 유일한 선포로 전해야 한다. 성경적 진리는 교회가 자신을 이해하고, 양육하며, 권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넘어 우리의 참된 필요를 보게 하며, 대중문화의 매혹적인 이미지와 상투어와 약속과 우선순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설교는 성경과 그 가르침의 해설이어야 하며, 설교자의 의견이나 시대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경과 분리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성경과 독립되거나 성경과 별개의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영적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다.

제1논제: 오직 성경

우리는 오류 없는 성경이 기록된 신적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며, 오직 성경만이 양심을 묶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성경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측정되어야 할 기준이다.

우리는 어떤 신조나 공의회나 개인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묶을 수 없음을 부인한다. 또한 성령께서 성경에 제시된 것과 독립되거나 그와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주장과, 개인의 영적 경험이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Solus Christus: 그리스도 중심 신앙의 침식

복음주의 신앙이 세속화되면서 그 관심은 문화의 관심과 뒤섞여 흐려졌다. 그 결과 절대적 가치가 상실되고, 방종한 개인주의가 퍼졌으며, 거룩함 대신 온전함이, 회개 대신 회복이, 진리 대신 직관이, 믿음 대신 감정이, 섭리 대신 우연이, 오래 건디는 소망 대신 즉각적 만족이

자리 잡았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시야 중심에서 밀려났다.

제2논제: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 그리스도의 종보 사역만으로 성취되었음을 재확인한다. 그분의 죄 없는 생애와 대속적 속죄만이 우리의 칭의와 아버지와의 화목에 충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요청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님을 부인한다.

Sola Gratia: 복음의 침식

인간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산물이다. 이 거짓 확신은 오늘날 복음주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존감 복음에서 건강과 부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판매할 상품으로 바꾸고 죄인을 그것을 사려는 소비자로 바꾼 이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단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되다고 여기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칭의 교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하고도 실제적인 원인이다. 우리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며,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에 협력할 능력조차 없음을 고백한다.

제3논제: 오직 은혜

우리는 구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우리를 죄의 종 됨에서 풀어 주시고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이다.

우리는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의 일이 아님을 부인한다. 인간의 방법과 기법과 전략 자체는 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Sola Fide: 으뜸 조항의 침식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다. 이것은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다. 오늘날 이 조항은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지도자와 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왜곡되며, 때로는 부인되기까지 한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지만, 현대성은 성경적 복음에 대한 이 불만의 불길을 더욱 크게 부채질한다. 우리는 이 불만이 우리의 사역의 성격과 우리가 전하는 내용까지 결정하도록 허용해 왔다.

교회성장 운동 안의 많은 이들은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포되는 성경적 진리만큼이나 복음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결과 신학적 확신은 자주 사역의 실제와 분리된다. 많은 교회의 마케팅 지향성은 이를 더 멀리 밀고 나가 성경의 말씀과 세상 사이의 구별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거침돌을 빼앗으며, 기독교 신앙을 세속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원리와 방법으로 축소한다.

십자가의 신학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이러한 운동들은 실제로 그 의미를 비워 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로서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걷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의 애국심이나 교회적 헌신이나 도덕적 품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4논제: 오직 믿음

우리는 칭의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는 칭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공로나, 우리 안에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삼는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부인하거나 정죄하는 기관이 교회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합법적인 교회로 인정할 수 있음을 부인한다.

Soli Deo Gloria: 하나님 중심 예배의 침식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고, 그리스도께서 밀려나며, 복음이 왜곡되고, 믿음이 변질되는 곳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상실된 것은 흔하고도 슬픈 일이다. 바로 이 상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오락으로, 복음 설교를 마케팅으로, 믿음을 기법으로, 선함을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으로, 신실함을 성공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우리 삶에 너무 가볍게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야망과 갈망과 소비 욕구와 사적인 영적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개인적 필요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왕국과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제5논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락과 혼동되거나, 설교에서 율법이나 복음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계발과 자존감과 자기실현이 복음의 대안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회개와 개혁을 향한 부름

과거 복음주의 교회의 신실함은 오늘날의 불신실함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금세기 초 복음주의 교회들은 놀라운 선교적 노력을 지속했고, 성경적 진리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많은 종교 기관을 세웠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기대가 문화의 행동과 기대와 뚜렷이 달랐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세계는 성경적 신실함과 도덕적 나침반과 선교적 열심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세속성을 회개한다. 우리는 세속 문화의 '복음들'에 영향을 받아 왔지만, 그것들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진지한 회개의 부족,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나 분명히 보는 죄를 우리 자신 안에서는 보지 못하는 눈멀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한 변명의 여지 없는 실패로 교회를 약화시켰다.

우리는 또한 이 선언에서 다른 문제들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에 있는 복음주의 신앙 고백자들을 간절히 다시 부른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도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들, 이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적 칭의 교리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포함된다.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선언을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정책과 삶과 전도 안에서 실천할 것을 숙고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이 선언문은 허락 없이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로 밝혀 주십시오.

원문 출처: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

<https://alliancenet.org/about/cambridge-declaration/english/>